

사상체질에 따른 적성검사의 비교연구

설유경* · 김종원*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the Sasang Constitution

Seul Yu-kyung* · Kim Jong-weon*

*Dept.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Colleague of Oriental Medicine, Dongeui Univ.

1. Purpose and Methode of study

This study is that How to connect the characteristics of Sasang constitionion with Aptitude Test. To know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in modern times

Generally , Psychological Aptitude Test is used. So, According to Sasang constitional groups classified with QSCC II, KIPAT occupation aptitude test (total 55) and KAT-A aptitude rest(total 260) was used.

2. Result of study

1) KIPAT occupation aptitude test result of Sasang constitional groups

Taeum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investigative occupation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eumin Group and Soeumin Group

Taeum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technological occupation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Taeum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control aptitude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eumin Group and Soeumin Group

Soyang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instigation aptitude and progressive aptitude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yangin Group and Soeumin Group

Soeum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utility aptitude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eumin Group and Taeumin Group , between Soeumin Group and Soyangin Group.

Soyang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guilty conscience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yangin Group and Taeumin Group.

Soeum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independence aptitude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eumin Group and Taeumin Group

Taeum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calculation ability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aeumin Group and Soeumin Group

2) KAT-A aptitude test result of Sasang constitional groups

Soyangin Group appeared high than another Group in vacabulary ability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yangin Group and Taeumin Group.

When classified male and female, in the case of male, It showed that Soyangin Group is lower than Other Group in vacabulary ability and there is th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oyangin Group and Taeumin Group , between Soyangin Group and Soeumin Group bu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case of female.

* 동의대학교 한의과 대학 사상체질과

교신저자 : 김종원 주소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 4동 산45-1번지 동의대학교 부속한방병원 사상체질과 (614-710) Tel)051-850-8640

E-mail)jwonkim@demc.or.kr

1. 연구목적과 연구방법

본 논문은 동의수세보원의 각 체질에 따른 性質, 才幹, 天機人事의 能不能이 현대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심리, 적성검사의 내용과 유사한 점이 많아 상호비교분석하여 체질진단의 한 방법으로 삼고자 한다. 그래서 이제마의 각 체질에 따라 KIPAT 직업적성검사(총 55명)와 KAT-A적성검사(총 260명)를 체질에 따라 실시하여 체질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2. 연구결과

1) 체질에 따른 KIPAT 직업적성진단검사 결과

연구적직업에서 태음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 집단과 소음인 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기술적 직업에서 태음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태음인 집단과 소양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지배성에서 태음인집단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집단과 소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충동성과 진취성에서는 소양인집단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소양인집단과 소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실리성에서는 소음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소음인집단과 태음인 집단, 소음인집단과 소양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자책감에서는 소양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양인집단과 태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자립성에서 소음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인집단과 태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계산능력에서 태음인집단이 타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집단과 소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2) 체질에 따른 KAT-A적성검사결과

남녀를 합한 경우 어휘력에서 소양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소양인집단이 태음인집단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특히 남자만의 경우 어휘력에서 소양인집단이 타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소양인집단이 태음인, 소음인집단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I. 緒 論

四象體質醫學의 활용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체질진단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外形, 心性, 證의 세가지 범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¹⁾ 이제마는 『東醫壽世保元』 「辨證論」에서 明知其人, 明知其證을 종합하여 체질을 감별토록 하였으며 人物形容 仔細商量 再三推移 如有迷惑則 參互病證 明見無疑 然後 可以用藥이라 하여 體刑氣象, 容貌詞氣, 性質才幹을 체질진단을 위한 기본적 근거로 삼고 그 위에 病症을 더하여 체질진단의 기준을 제시하였다. 그 중 心性에 대하여 이제마는 性情을 바탕으로 하여 性이 天機(天時, 人倫, 世會, 地方)와 情이 人事(事務, 交遇, 黨與, 居處)와 관계를 맺으며 性情의 편차에 따른 天機, 人事의 能, 不能과 관련되어²⁾ 이러한 것

1) 정원교, 사상체질진단법의 문헌적 고찰, 사상체질의학회지 Vol.11.No.2.1999

2) 사상의학,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집문당 pp438-439 "3-2 太陽之耳 能廣博於天時而 太陽之鼻 不能廣博於人倫 太陰之鼻 能廣博於人倫而 太陰之耳 不能廣博於天時 少陽之目 能廣博於世會而 少陽之口 不能廣博於地方 少陰之口 能廣博於地方而 少陰之目 不能廣博於世會 3-3 太陽之脾 能勇統於交遇而 太陽之肝 不能雅立於黨與 少陰之肝 能雅立於黨與而 少陰之脾 不能勇統於交遇 少陽之肺 能敏達於事務而 少陽之腎 不能恒定於 居處 太陰之腎 能恒定於居處而 太陰之肺 不能敏達於事務"

이 性氣, 情氣를 바탕으로 각 체질의 性質, 才幹³⁾으로 나타나게 됨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太陰人 恒有怯心 少陽人 恒有懼心 少陰人 恒有不安定之心 太陽人 恒有急迫之心이라하여 체질별 恒心에 대해 제시하기도 한다.

현재 이러한 특징들이 자기보고식 설문조사 기법이 응용된 사상변증설문조사지 I, QSCC I, QSCC II의 내용에 포함되어 체질진단의 기준으로 응용되고 있다.

이제마의 『東醫壽世保元』 이후로 많은 연구에 의하여 四象體質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하는 단계에 이르렀으나 『東醫壽世保元』의 고전적인 용어가 임상에서 이해하기 쉽지 않고 또한 체질에 따른 특징들을 현대적으로 명확히 나타내기에 곤란을 겪는 점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각 체질에 따른 性質, 才幹, 天機人事의 能不能에 대하여 성격특성검사²⁾, 심리검사³⁻⁴⁾등을 이용하여 연구되기도 하고 브레인스토밍이란 방법을 이용한 유아들의 행동특성, 실외놀이에 따른 행동특성⁵⁻⁶⁾에 관한 연구도 시도되고 있다. 그리고 사상변증설문조사지 I, QSCC I, QSCC II의 문항에 대해서도 체질별 응답차이에 따른 비교분석연구⁷⁻⁸⁾를 통해 좀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체질에 따라 유전학적인 차이가 있는가⁹⁻¹²⁾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며 체질에 따른 두뇌영역의 차이가 있는가¹³⁾라는 질문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도 『東醫壽世保元』의 각 체질에 따른 특징들에 대해 심리적성검사를 이용하여 상호비교분석하여 체질진단의 한 방법으로 삼고자 한 것이다. 현대에 있어서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일반적으로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크게 4가지로 나뉘는데 첫째 지적인 능력을 측정하는 검사이며 둘째, 개인의 행동유형과 정서적 상태등을 측정하는 성격검사, 셋째, 직업적성검사로 대표적으로 직업군별에 따른 것이 있다. 넷째, 개인의 흥미방향에 따라 어느 직업이 적합한가를 판단하려는 흥미검사가 있다.⁴⁾ 이중 지능검사도 단순한 지능지수의 차이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이해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구성되는 정신적 능력⁵⁾이라 정의되는 지능의 의미로 새로운 각도의 검사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총체적 능력을 이제마의 각 체질에 따른 性質, 才幹, 天機人事의 能不能과의 연관성을 생각하여 좀더 객관화하기 위해 여러 인지기능의 총체적 능력과 적성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인 KIPAT 직업적성검사와 KAT-A적성검사를 체질에 따라 실시하여 四象體質과의 연관성을 조사하였다.

II. 研究方法

본 연구는 四象體質에 따른 적성, 성격, 능력검사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한 작업으로 KIPAT 직업적성검사와 KAT-A적성검사 2가지를 이용하였다.

1. 연구대상과 방법

KIPAT 직업적성검사는 연구 목적에 동의한 동의대학교 한의과 대학 학생 55명을 대

3) 사상의학, 위의 책, p495 “18-3太陽人 性質 長於疏通而 材幹 能於交遇 少陽人 性質 長於剛武而 材幹 能於事務 太陰人 性質 長於成就而 材幹 能於居處 少陰人 性質 長於端重而 材幹 能於黨與”

4) 김연진, 김기봉, 직업적성검사, 삼하출판사, p13

5) 김소연, Sterberg의 지능 및 사고양식이론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4
고두영, 다중특성-다중방법을 적용한 정서지능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1-4
김동인, 심리검사의 표준화 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8-15

상으로 실시하여 적성검사, 성격검사, 능력검사 결과를 알아본후 QSCCⅡ(사상체질검사)를 실시하였다.

KAT-A적성검사는 연구목적에 동의한 동의 대학교 교육학에 관련된 교양선택과목 수강자와 교육학전공자 2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적성검사결과를 알아본후 QSCCⅡ(사상체질검사)를 실시하였다.

표-1 KIPAT 직업적성검사 조사대상자의 남녀별, 체질별 분포

성별	
남	36명(65.4%)
여	19명(34.6%)
체질별	
태음인	16명(29%)
소양인	15명(27.3%)
소음인	24명(43.6%)
총인원	55명(100%)

남	63명(100%)	여	197명(100%)
태음인	23(36.5%)	태음인	49(24.9%)
소양인	18(28.6%)	소양인	87(44.2%)
소음인	22(34.9%)	소음인	61(30.9%)

표-2 KAT-A적성검사 조사대상자의 남녀별, 체질별 분포

성별	
남	63명(24.2%)
여	197명(75.8%)
체질별	
태음인	72명(27.7%)
소양인	105명(40.4%)
소음인	83명(31.9%)
총인원	260명(100%)

2. 연구도구

1) KIPAT 직업적성검사

본 검사는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에서 발

행한 것으로 검사1(적성검사), 검사2(성격검사), 검사3(능력검사)로 구성되어 검사1은 사무적, 기업적, 연구적, 기술적, 사회적, 예술적 직업의 6요인으로 검사2는 협동성, 추상성, 정서안정성, 지배성, 충동성, 책임성, 진취성, 민감성, 불신감, 감상적, 실리성, 자책감, 창의성, 자립성, 자율성, 불안감의 16요인으로 검사3은 문장이해, 언어추리, 추리력, 판단력, 계산능력, 공간지각의 6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2) KAT-A적성검사

본 검사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것으로 적성측정에 관한 이론을 다각적으로 비교, 검토한후 기본적인 능력요인접근(Primary Mental Factor Approach)과 직업요소접근(Job Element Approach)을 통하여 8개의 적성요인(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수추리력, 과학적 사고력, 언어논리력, 독표력)을 구성하여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하위검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 것으로 문항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를 구하여 검사의 신뢰도를 추정한 것이다. 본 적성검사의 전체신뢰도 계수는 .88이며Cronbach's α 계수는 .50~.92의 범위 내에 있다.6)

3. 통계처리

먼저 KIPAT 직업적성검사는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에 의뢰하여 컴퓨터에 의해서 채점하였고 KAT-A적성검사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컴퓨터에 의해서 채점하였다.

그 다음 각 체질에 따른 KIPAT 직업적성검사와 KAT-A적성검사의 문항에 따른 점수를 일차적으로 세 집단간의 평균비교를 위해서 1요인 분산분석(one way ANOVA)를 하였는데 통계는 SPSS ver 10.0을 사용하였다. (유의수준 $p < 0.05$) p value 가 0.05 보다 작은 경우 다중비교(사후 검정)를 하였

6) 한국교육심리검사총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p316-318

다. 다중비교란 1요인 분산분석에 의하여 영가설이 기각되었을 때 이 중 어느 집단의 모평균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판정하는 법이다. 다중비교에는 LSD, Tukey, Scheffe 등이 있는데 각 집단의 표본수가 다르며 짝비교외에 복잡한 비교를 하고자할 때 적합한 것이 Scheffe법이므로 Scheffe법을 사용하였다.

Ⅲ. 研究結果

1. KIPAT 직업적성검사에 대한 체질별 ANOVA결과

1) 적성검사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체질에 따른 연구적 직업을 일원분산분석 한 결과 평균값은 각각 46.00 30.83 34.26으로 상대적인 비교에서 太陰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3) post-hoc(사후검정 Scheffe법)에서는 太陰人集團과 少陰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3-1)

기술적 직업을 일원분산분석 한 결과 평균값은 각각 35.31 24.08 18.60으로 상대적인 비교에서 太陰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3) post-hoc에서는 太陰人集團과 少陽人集團에서 유의성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3-1)

사무적 직업, 기업적 직업, 사회적 직업, 예술적 직업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3. Oneway ANOVA result of Aptitude Test of KIPAT by Sasang Constitutio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F-Value	P-Value
사무적 직업	19.50(11.17)	20.91(12.31)	13.80(9.47)	1.91	.1577
기업적 직업	29.50(18.55)	18.87(11.85)	20.60(11.99)	2.88	.0651
연구적 직업	46.00(21.20)	30.83(13.74)	34.26(17.83)	3.82	.0283*
기술적 직업	35.31(25.45)	24.08(14.90)	18.60(12.68)	3.49	.0377*
사회적 직업	34.68(17.52)	27.37(13.24)	32.40(18.52)	1.08	.3453
예술적 직업	29.56(18.34)	30.29(17.58)	28.13(16.91)	.06	.9331

표-3-1 P < 0.05인 항목의 Scheffe법 사후검정(다중비교)

		SD	P-Value
연구적 직업	태음인 소음인	15.17	.032
	소양인	11.73	.834
	태음인 소양인	-15.17	.032
기술적 직업	소음인 태음인	-3.43	.178
	소양인 태음인	-11.73	.178
	소음인 소양인	3.43	.834
태음인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	11.23	.169
	소양인	16.71	.045
	소음인 태음인	-11.23	.169
소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양인	5.48	.658
	태음인 소양인	-16.71	.045
	소음인 소양인	-5.48	.658

2) 성격검사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체질에 따른 지배성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상대적인 비교에서 각 집단의 평균값이 88.50 70.70 86.80으로 太陰人集團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4) post-hoc에서는 太陰人集團과 少陰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4-1)

충동성에서는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각 집단의 평균값이 43.43 27.87 51.46으로 少陽人集團이 타집단 보다 높게 나타났다.(표-4) post-hoc에서는 少陽人集團과 少陰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4-1)

진취성에서는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각 집단의 평균값이 47.68 31.87 59.40으로 少陽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4) post-hoc에서는 少陽人集團과 少陰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4-1)

실리성에서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각 집단의 평균값이 48.56 80.25 37.40으로 少陰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4) post-hoc에서는 少陰人集團과 太陰人集團 그리고 少陰人集團과 少陽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4-1)

자책감에서는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각 집단의 평균값이 57.31 67.83 79.06으로 少陽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4) post-hoc에서는 少陽人集團과 太陰人集團에서 유의성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표-4-1)

자립성에서는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각 집단의 평균값이 73.43 91.66 82.53으로 少陰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표-4) post-hoc에서는 少陰人集團과 太陰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4-1)

협동성, 추상성, 정서안정성, 책임성, 민감성, 불신감, 감상적, 창의성, 자율성, 불안감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4. Oneway ANOVA result of Personality Test of KIPAT by Sasang Constitutio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F-Value	P-Value
협동성	52.56(33.38)	51.79(32.30)	48.73(28.65)	.06	.9377
추상성	68.68(28.19)	77.29(20.27)	73.66(26.39)	.59	.5559
정서안정성	58.75(22.26)	56.50(24.64)	54.46(29.64)	.10	.8961
지배성	88.50(13.80)	70.70(24.39)	86.80(20.08)	4.58	.0146*
충동성	43.43(25.38)	27.87(22.88)	51.46(25.08)	4.78	.0124*
책임성	71.06(18.96)	75.00(20.69)	59.13(26.19)	2.48	.0931
진취성	47.68(36.22)	31.87(21.34)	59.40(30.08)	4.43	.0167*
민감성	41.06(30.79)	48.04(28.95)	54.33(28.76)	.78	.4598
불신감	65.75(23.55)	70.20(23.74)	71.53(27.37)	.24	.7857
감상적	83.37(11.17)	68.50(21.21)	76.86(24.69)	2.73	.0739
실리성	48.56(25.07)	80.25(17.77)	37.40(29.00)	17.86	.0000**
자책감	57.31(20.64)	67.83(26.82)	79.06(14.83)	3.66	.0326*
창의성	75.56(21.54)	61.12(24.83)	73.33(22.65)	2.25	.1155
자립성	73.43(23.89)	91.66(10.39)	82.53(21.71)	4.75	.0127*
자율성	50.06(34.36)	55.20(23.41)	51.60(22.65)	.19	.8239
불안감	69.37(23.05)	72.41(19.59)	80.20(21.67)	1.08	.3467

표-4-1 P< 0.05인 항목의 Scheffe법 사후검증(다중비교)

		SD	P-Value
지배성	태음인 소음인	17.79	.036
	소음인 소양인	1.70	.974
	소음인 태음인	-17.79	.036
충동성	소음인 태음인	-16.09	.070
	소양인 태음인	-1.70	.974
	소양인 소음인	16.09	.070
진취성	태음인 소음인	15.56	.148
	소음인 태음인	-8.03	.656
	소음인 소양인	-15.56	.148
실리성	소양인 태음인	-23.59	.018
	소양인 태음인	8.03	.656
	소양인 소음인	23.59	.018
자책감	태음인 소음인	15.81	.242
	소음인 태음인	-11.71	.529
	소음인 소양인	-27.53	.020
자립성	소양인 태음인	11.71	.529
	소양인 소음인	27.53	.020
	태음인 소음인	-31.69	.001
협동성	소음인 소양인	11.16	.421
	소음인 태음인	31.69	.001
	소양인 태음인	42.85	.000
추상성	소양인 태음인	-11.16	.421
	소양인 소음인	-42.85	.000
	태음인 소음인	-10.52	.353
정서안정성	소음인 소양인	-21.75	.033
	소음인 태음인	10.52	.353
	소양인 소양인	-11.23	.320
민감성	소양인 소음인	21.75	.033
	소양인 태음인	11.23	.320
	태음인 소음인	-18.23	.013
불신감	소음인 태음인	-9.10	.396
	소음인 소양인	18.23	.013
	소양인 소양인	9.13	.329
감상적	소양인 태음인	9.10	.396
	소양인 소음인	-9.13	.329

3) 능력검사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체질에 따른 계산능력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그 평균값이 82.68 67.41 79.80으로 太陰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P-Value는 .0319이다.(표-5) 그러나 post-hoc에서는 체질집단간의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표-5-1)

그리고 문장이해, 언어추리, 추리력, 판단력, 공간지각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5 Oneway ANOVA result of Ability Test of KIPAT by Sasang Constitutio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F-Value	P-Value
문장이해	68.12(17.52)	66.12(24.95)	60.06(26.15)	.50	.6076
언어추리	87.18(5.63)	87.12(7.33)	89.06(5.03)	.50	.6071
추리력	62.00(23.55)	63.16(20.41)	61.20(27.27)	.05	.9661
판단력	92.93(7.77)	90.00(20.42)	90.93(8.84)	.18	.8299
계산능력	82.68(5.25)	67.41(27.34)	79.80(8.69)	3.71	.0310*
공간지각	78.12(17.21)	74.45(24.52)	87.13(10.40)	1.97	.1497

* : P<0.05
* * : P<0.01

표-5-1 P< 0.05인 항목의 Scheffe법 사후검증(다중비교)

		SD	P-Value
계산능력	태음인 소음인	15.27	.053
	소음인 소양인	2.89	.914
	소음인 태음인	-15.27	.053
	소양인 소양인	-12.38	.149
	소양인 태음인	-2.89	.914
	소음인 소음인	12.38	.149

2. KAT-A적성검사에 대한 체질별 ANOVA결과

1) 남자만의 경우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체질에 따른 어휘력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각 평균값이 58.74 59.59 52.11으로 상대적인 비교에서 少陽人集團이 타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표-6) post-hoc에서 少陽人集團이 太陰人, 少陰人集團과 유의성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6-1)

단, 태음인과 소음인 집단은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수추리력, 과학적사고력, 언어논리력, 독표력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6. Oneway ANOVA result of KAT-A Aptitude Test by Sasang Constitutio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F-Value	P-Value
어휘력	58.74(7.51)	59.59(7.15)	52.11(9.39)	5.081	.009 *
추리력	56.52(7.87)	54.73(10.91)	50.00(10.30)	2.361	.103
수리력	52.96(9.85)	52.73(7.73)	49.67(9.72)	.783	.462
공간지각력	47.04(8.36)	47.55(14.18)	47.61(8.92)	.018	.983
수추리력	54.83(15.02)	53.09(11.22)	52.44(10.67)	.201	.818
과학적사고력	48.09(11.73)	50.14(8.40)	53.67(9.17)	1.601	.210
언어논리력	49.22(12.98)	49.27(9.82)	49.83(8.64)	.019	.981
독표력	46.87(12.67)	46.41(10.23)	43.22(10.47)	.604	.550

표-6-1 P< 0.05인 항목의 Scheffe법 사후검증(다중비교)

		평균차	유의확률
어휘력	태음인 소음인	-.85	.938
	소음인 소양인	6.63	.037
	소음인 태음인	.85	.938
	소양인 소양인	7.48	.017
	소양인 태음인	-6.63	.037
	소음인 소음인	-7.48	.017

2) 여자만의 경우

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수추리력, 과학적사고력, 언어논리력, 독표력에서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체질에 따라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상대적인 비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7)

표-7. Oneway ANOVA result of KAT-A Aptitude Test by Sasang Constitutio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F-Value	P-Value
어휘력	57.80(8.08)	56.48(6.10)	55.34(8.00)	1.703	.185
추리력	53.27(12.00)	54.44(8.81)	53.67(9.50)	.204	.815
수리력	52.73(12.26)	49.93(9.31)	52.29(10.45)	1.205	.302
공간지각력	42.67(12.11)	44.54(12.71)	43.90(9.94)	.371	.691
수추리력	54.04(11.76)	53.80(8.65)	55.55(9.74)	.667	.514
과학적사고력	40.69(8.33)	40.23(8.45)	39.91(8.15)	.141	.868
언어논리력	52.10(7.89)	53.72(7.62)	52.61(8.85)	.578	.562
독표력	46.24(8.75)	43.51(8.43)	45.97(9.20)	1.772	.173

3) 남녀 합하여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의 체질에 따른 어휘력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상대적인 비교에서 각 평균값이 58.10 57.30 54.79로 소양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다.(표-8) post-hoc에서 소양인집단이 태음인집단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표-8-1)

그리나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수추리력, 과학적사고력, 언어논리력, 독표력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8. Oneway ANOVA result of the 지능, 적성검사 for Sasang Constitution

	태음인	소음인	소양인	F-Value	P-Value
어휘력	58.10(7.86)	57.30(6.50)	54.79(8.30)	4.653	.010 *
추리력	54.31(10.91)	54.52(9.34)	53.04(9.69)	.614	.542
수리력	52.81(11.54)	50.67(8.96)	51.84(10.33)	.838	.434
공간지각력	44.07(11.18)	45.34(13.09)	44.53(9.84)	.253	.777
수추리력	54.29(12.79)	53.61(9.33)	55.02(9.92)	.408	.665
과학적사고력	43.06(10.08)	42.86(9.47)	42.27(9.79)	.161	.852
언어논리력	51.18(9.80)	52.54(8.43)	52.13(8.83)	.462	.631
독표력	46.44(10.08)	44.28(8.97)	45.50(9.43)	1.024	.360

*: P<0.05

표-9-1 P< 0.05인 항목의 Scheffe법 사후검증(다중비교)

		SD	P-Value
어휘력	태음인	.80	.811
	소음인	3.31	.020
	소양인	-0.80	.811
	태음인	2.51	.084
	소양인	-3.31	.020
	소음인	-2.51	.084

IV 考 察

四象醫學에서는 각 체질의 心性, 體刑氣像과 容貌詞氣, 性質, 才幹, 體質證과 體質病症 등으로 체질진단의 기준을 삼고 있다. 그리

나 주관적인 면이 많이 개입되므로 지금까지 많은 논의와 연구를 통해 객관적이며 확실한 방법을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중이다. 현재 객관적인 체질진단을 위한 방법으로 체질진단의 기준들을 담은 사상변증설문조사지 I, QSCC I, QSCC II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연구방향, 현대과학을 이용한 유전자특성을 체질에서 찾고자 하는 방향 그리고 성격, 심리검사를 이용한 체질간의 특징들에 대한 상호비교연구 방향등이 있는데 그 중 성격, 심리검사를 이용한 연구결과에서 서4)는 상대불안척도와 특성불안척도를 이용한 사상체질별 불안에 대한 비교 결과 소음인, 태음인, 소양인의 순서로 불안의 성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으며 박2)은 NEO-PI-R(성격특성검사)의 인성검사 결과에 의하면 태양인은 NEO-PI와 PAI의 척도와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조증의 성향과 유사하고 소양인은 NEO-PI와 PAI의 척도와 상관관계 분석에 의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태음인은 Widiger, Trull, Clarkin, & Costa(1994) 성격장애의 성격특성과 비교에 의한 부정적 성격장애와 가학성 성격장애의 특성을 지고 있으며 소음인은 Widiger, Trull, Clarkin, & Costa (1994) 성격장애의 성격특성과 비교에 의한 우울적 성격장애의 특성을 지고 있다고 하였다. 성3)은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 성격유형의 설문비교 연구에서 소양인은 체질심성일치도가 내향형에서는 낮고 외향형에서는 높으며 태음인은 체질심성일치도가 내향형에서는 높고 외향형에서는 낮았다(ESTJ제외)고 말하고 있다.

현재 四象醫學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연구중에서 본 논문이 추구하는 바도 체질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각 체질마다 가지는 특징이라는 性質, 才幹, 天機人事의 能不能에 대해 현대적인 도구인 심리적성검사를 이용하여 상호비교연구를

한 것이다.

四象醫學에서는 체질에 따른 性情의 편차가 있으며 이 편차로 인하여 각 체질에 따른 天機와 人事(天時, 人倫, 世會, 地方, 事務, 交遇, 黨與, 居處),⁷⁾ 그리고 疏通 剛武 成就 端重에 대해 잘하고 못하는 바가 있다⁸⁾ 하였고 太陽人은 항상 急迫之心이 있으며 放縱之心으로 인해 鄙人이 되기 쉬우며, 少陽人은 항상 懼心이 있으며 偏私之心으로 薄人이 되기 쉽고, 太陰人은 항상 怯心이 있으며 物慾之心으로 인해 貪人이 되기 쉬우며, 少陰人은 항상 不安定之心이 있으며 偷逸之心으로 인해 懶人이 되기 쉬운 특징을 나타낸다⁹⁾하여 체질에 따른 恒心과 心慾의 차이가 있다하였고 또한 체질에 따라 비록 至不肖하다하여도 人之善惡 人之知愚 人之勤惰 人之能否를 알 수 있다¹⁰⁾ 고하였다.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인간의 天機人事의 能不能과 心慾의 차이와 같은 개인의 특성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대부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학력검사나 지능검사를 경험하고 중·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여기에 적성검사, 성격검사, 흥미검사 중 한두가지의 검사를 경험하게 된다. 게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각 기업체에서 신입사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당락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직장내에서의 성공여부를 가름하는 자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표준화심리검사는 역사적으로 1915년 Binet-Simon 지능검사가 개발되면서부터 시작한다. 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특성만큼이나 다양한 심리검사들이 제작되어 사용되어 오고 있다. 그

중 우리나라 의 표준화심리검사는 1955년 정범모의 간편 지능검사가 처음으로 개발되면서부터 시작한다.¹¹⁾

심리검사란 인간의 심리적 특성중 어느 하나를 측정하기 위한 도구의 하나로서 간략하게 추상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이때 인간의 심리적 특성이란 지적, 정의적 및 심리운동의 기능적영역, 또는 심동적 영역으로 크게 셋으로 대별할 수 있다. 여기서의 검사란 한 개인의 행동의 표집을 통하여 주어진 어떤 심리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증세를 통하여 병을 진단하는 것과 같이 어떤 특성이나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할 때에 나타나는 행동을 통하여 주어진 특성을 측정하는 간접적인 측정이다.¹²⁾

인간심리적 특성의 측정을 위해 먼저 지적영역을 살펴보면 대표적으로 지능검사, 적성검사, 학력검사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능검사는 검사당시의 전반적인 지적수준을 반영하는 것이지, 사회 경제 문화적 영향, 그리고 교육환경의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으며, 또한 장차 얼마나 발전할 것인가의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이다. 학자마다 지능의 정의는 조금씩 다른데 Piaget는 지능이란 '환경에 대한 적응능력'으로 보았고, Stanford-Binet 지능검사를 만든 Terman은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았다. 지능검사를 최초로 제작한 Binet는 지능에는 판단력, 실제적 감각, 주도력, 그리고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보았고 Wechsler는 지능이란 '합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 목적을 갖고 행동하는 능력, 그리고 환경에 효

7) 사상의학, 전국 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집문당 pp438-439 "3-2"
8) 사상의학, 위의 책, p495 "18-3"
9) 사상의학, 위의 책, p 88
10) 사상의학, 위의 책, pp0439-440 "3-11"
11) 김병진 진로탐색검사의 타당화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
12) 한국교육심리검사총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p16-17 p50-112

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 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하워드 가드너는 84년 저서 '마음의 틀'에서 다중지능(MI:Multiple Intelligence)¹³⁾을 제창했다.

그러므로 지능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고 경험으로부터 학습하는 능력, 이해하고 추상적으로 사고하며, 자신의 환경을 변화시키는 지식을 사용하는 능력으로 구성되는 정신적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지능은 하나의 능력이 아니라, 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인지기능들의 총체적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¹⁴⁾

이러한 여러 인지기능의 총체적 능력이 지능이라면 이 지능은 四象醫學에서性情과 관련지을 수 있을 것이다. 四象醫學에서는性情의 차이로 각 체질의性質, 才幹, 能不能이 나타나므로性情이 개인적인 총체적 능력에 차이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저자는 본 연구에 앞서 「四象醫學의性情 개념과 腦와의 상관성 연구」에서性情의 개념을 첫째로, 사고기능과 창조기능을 담당하는 대뇌피질을 「擴充論」에 나타난耳目鼻口를 통한聽視嗅味の性기능과 연결시킬 수 있으며 둘째로, 감정의 중추인 대뇌변연계를 「擴充論」에 나타난肺脾肝腎을 통한喜怒哀樂의情과 연결시킬 수 있고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생명유지를 담당하는 뇌간시상하부와 「四端論」에 나타난直升, 橫升, 放降, 陷降하는 기운의 모습과 연관성이 있다고 하여性情을 腦의 구조와 기능과 연결시켜 보았다.

따라서 현대의 지능에 대한 총체적인 개념의 새로운 방향과 四象醫學에서의性情의 차이에 인한性質, 才幹, 天機人事의能不能의

종합적인 개념에는 많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두 번째 정의적 영역이란 인간의 여러 가지 행동영역 중에서 정서, 감정, 느낌이 주로 반영된 행동 특징들을 가리킨다. 정의적 행동은 강도, 방향, 그리고 대상이라는 세가지 준거를 가지고 있으며 그 정의적 특징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을 선천적 요소와 학습, 경험요소가 상호작용하여 형성되는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한 검사로 흥미검사, 성격검사, 가치관검사, 자아개념검사등이 있다. 이 부분 역시 四象人의恒心과心慾의 특징과 연관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즉 太陽人은 항상急迫之心이 있으며放縱之心으로 인해鄙人이 되기 쉬우며, 少陽人은 항상懼心이 있으며偏私之心으로 薄人이 되기 쉽고, 太陰人은 항상怯心이 있으며物慾之心으로 인해貪人이 되기 쉬우며, 少陰人은 항상不安定之心이 있으며偷逸之心으로 인해懶人이 되기 쉬운 특징을 나타낸다고 하였는데 바로 어떤 대상이 정의적인 강도의 차이와 방향의 차이로 각 체질의 이런 변화를 나타내는 것일 것이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심동적 영역의 검사란 체력검사, 운동능력의 검사 등이 있는데 체육의 목표에서 강조되는 영역으로 체력이나 운동기능에 관한 실기검사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지적, 정의적 영역의 필기검사를 포함하는 종합적인 검사를 뜻한다.

이 중 이 논문에서는 주로 지적영역과 정의적 영역에 비중을 두어 적성검사를 실시하였다.

그래서 여러 지적기능과 정의적 기능을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중의 하나인 한국심리적성검사연구소에서 발행한 KIPAT 적

13) 가드너 교수는 지능은 아이큐처럼 한 종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가 있다고 보고 MI를 구성하는 8가지 지능을 다음과 같이 설정했다.

- ① 언어지능 ②음악지능 ③논리수학지능 ④공간지능 ⑤신체운동지능
- ⑥ 대인(對人)지능(대인관계에 출중한 능력과 소질을 소유한 사람의 능력)
- ⑦ 대내(對內)지능(자신의 감정과 의견, 태도를 엄격히 통제할 줄 아는 소질과 적성)
- ⑧ 자연지능(동식물을 관찰·수집하고 좋아하는 능력)

14) 교육심리학의 새로운 쟁점과 이론 이성진, 김계현 교육과학사 p.23-40

업적성진단검사와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KAT-A적성검사를 체질에 따라 실시하여 현대의 심리검사결과와 사상체질사이에 어떤 연관성을 보이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조사한 것이다.

체질에 따른 KIPAT 직업적성진단검사결과에서 먼저 적성검사에서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 체질에 따른 연구적 직업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太陰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太陰人集團과 少陰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기술적 직업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太陰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太陰人集團과 少陽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사무적 직업, 기업적 직업, 사회적 직업, 예술적 직업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3)

성격검사에서는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の 체질에 따른 지배성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太陰人集團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충동성과 진취성, 자책감에서는 少陽人集團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실리성, 자립성에서는 少陰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협동성, 추상성, 정서안정성, 책임성, 민감성, 불신감, 감상적, 창의성, 자율성, 불안감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4)

능력검사에서는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の 체질에 따른 계산능력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太陰人集團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太陰人集團과 少陰人集團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문장이해, 언어추리, 추리력, 판단력, 공간지각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5)

두 번째 체질에 따른 KAT-A적성검사결과

는 총260명의 남녀를 합한 경우 太陰人, 少陰人, 少陽人の 체질에 따른 어휘력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少陽人集團이 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少陽人集團이 太陰人集團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그러나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수추리력, 과학적사고력, 언어논리력, 독표력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8)

그리고 남녀를 구분하여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총 63명의 남자만의 경우 少陽人集團이 타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少陽人集團이 太陰人, 少陰人集團과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단, 太陰人과 少陰人 集團은 차이가 인정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전체와 마찬가지로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수추리력, 과학적사고력, 언어논리력, 독표력에서는 체질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6)

총 197명의 여자만의 경우 체질에 따른 어휘력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어휘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지각력, 수추리력, 과학적사고력, 언어논리력, 독표력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7)

이상에서 현대에서 인간의 특성을 측정하는 심리검사에 대한 약간의 소개와 채택한 적성검사결과와 체질간의 연관성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그러나 좀더 많은 대상을 확보한 KAT-A적성검사에 따른 체질연관성 결과가 미흡한 점이 아쉽고 그리고 체질분류를 QSCCⅡ에만 의존한 점, KIPAT 직업적성진단검사의 표본수가 작았던 점등을 보완한다면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에 도움이 되는 방법이 되리라 생각한다.

V. 結 論

체질에 따른 KIPAT 직업적성검사와 KAT-A 적성검사의 문항에 따른 점수를 1요인 분산분석 (one way ANOVA)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KIPAT 직업적성진단검사결과

연구직직업에서 태음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 집단과 소음인 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기술적 직업에서 태음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태음인 집단과 소양인집단에서 유의성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지배성에서 태음인집단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집단과 소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충동성과 진취성에서는 소양인집단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소양인집단과 소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실리성에서는 소음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고 소음인집단과 태음인 집단, 소음인집단과 소양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자책감에서는 소양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양인집단과 태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자립성에서 소음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소음인집단과 태음인집단에서 유의성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계산능력에서 태음인집단이 타집단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태음인집단과 소음인집단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2. 체질에 따른 KAT-A적성검사결과

남녀를 합한 경우 어휘력을 일원분산분석한 결과 소양인집단이 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소양인집단이 태음인집단과 유의성 있

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특히 남자만의 경우 어휘력에서 소양인집단이 타집단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소양인집단이 태음인, 소음인집단과 유의성있는 차이가 인정되었다.

參 考 文 獻

1. 전국한의과대학 사상의학교실, 사상의학, 집문당
2. 박효인, 사상체질분류검사와 성격특성검사의 비교분석을 통한 사상체질별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Vol.12 No.2
3. 성진혁, 사상체질의학의 심성과 MBTI성격유형의 설문비교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Vol.13 No.2
4. 서웅, Beck 우울척도, 상태-특성 불안척도를 이용한 사상의학 심리특성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12 No.1
5. 김미경, 사상체질별 유아들의 체격, 기질 및 행동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학위논문
6. 전경원, 사상체질 분류에 의한 브레인스토밍 집단 구성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Vol.12 No.1
7. 박은경, 설문지 문항에서의 체질별 응답차이 비교분석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Vol.12 No.1
8. 김영우, 사상체질진단의 객관화에 관한 연구, 사상체질의학회지 Vol.11 No.2
9. 최승훈, 사상체질유형과 ACE유전자 타입과의 상관관계, 사상의학회지 Vol.10 No.2
10. 하만수, 유전자를 이용한 체질유형감별의 방법론에 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11 No.2
11. 한성규, HLA typing을 이용한 체질유전자 분석에 관한 연구, 사상의학회지 Vol.13 No.1

12. 이수경, 사상체질의 유전적 다형성 연구, 사상학회지 Vol.13 No.2
13. 설유경, 사상의학에 나타난 성정의 개념과 뇌와의 상관성에 관한 고찰, 사상의학회지 Vol.12 No.2
14. 김연진, 김기봉, 직업적성검사, 삼하출판사
15. 한국교육심리검사총람,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교육연구소
16. 김병진, 진로탐색검사의 타당화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7. 이성진, 김계현, 교육심리학의 새로운 쟁점과 이론, 교육과학사
18. 김동인, 심리검사의 표준화과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고두영, 다중특성-다중방법을 적용한 정서지능의 타당성에 관한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 김소연, Sternberg의 지능 및 사고양식 이론의 타당화,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